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LL MEET YOU THERE

가제 : 거기서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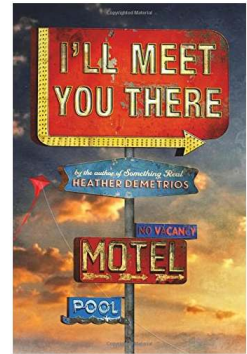
저자 : Heather Demetrios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5년 2월 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지독한 외로움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남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

딱히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트레일러들과 낡아빠진 집 몇 채, 영업을 겨우 이어가는 가게 몇 곳과 ‘파라다이스 모텔’이 전부인 캘리포니아의 쇠퇴한 마을 크릭뷰. 이 마을에 사는 열일곱 살 스카일러 에반스는 아무런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크릭뷰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길 꿈꾸며 살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매일 같이 열리는 방탕한 파티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술을 퍼마시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동급생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온 스카일러는 기이할 정도로 순진함을 잃지 않은 여학생이다.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그녀에게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술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할 기회가 주어지고, 스카일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다가올 여름 석 달만 꼭 참기로 한다.

그 시간만 견디면 족쇄 같은 삶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또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진다. 알코올 중독자로 늘 위태롭게 지내던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쫓겨나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런 엄마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나는 건 착실한 스카일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에서 만난 조쉬 역시 새출발을 하려던 그녀의 계획을 주저하게 만든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돌아온 군인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순진한 여학생의 소중한 만남과 약속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주말을 맞아 진탕 마시고 노는 십대들의 파티가 열린 어느 날, 스카일러는 해군 유니폼을 입은 조쉬 미첼과 만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발로 다리 하나를 잃고 마을로 돌아온 열아홉 살 조쉬는 몸도 마음도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상태로 위스키와 닥치는 대로 만나는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생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찌든 삶의

무게를 종이로 콜라주를 만들며 해소하는 스카일러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과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서로에게 깊이 끌리게 만든다. 또래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참 많이 다른 서로의 모습에 끌리지만, 자신의 미래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기회 앞에서 망설이며 고민이 깊어만 가는 스카일러와, 전쟁에 대한 기억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 한없이 괴로워하는 조쉬는 결국 두려운 마음에 서로를 밀어내고 만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소중한 관계를 더 키워갈 수 있을까?

생생한 묘사를 위해 참전군인들을 직접 만나며 심층 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대도시와 동떨어진 작은 마을의 삶과 더불어 전쟁이 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마음 속 깊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주변 세상에서 얻은 좌절감에 주저 앉은 두 십대 남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너무나 절실했다. 그들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예기치 못한 우정을 키우고 이 감정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헤더 디메트리오스(Heather Demetrios)는 전작인 YA 소설 《Something Real》로 많은 찬사를 받은 작가로, 동 작품으로 'Susan P. Bloom PEN New England Discovery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JOSHUA AND THE LIGHTNING ROAD

가제 : 조슈아와 번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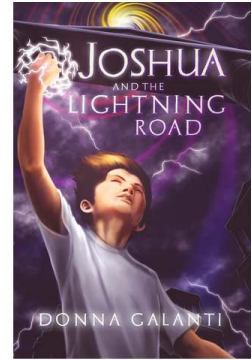
저자 : Donna Galanti

출판사: Month9Books

발행일: 2015년 5월 19일

분량 : 257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유난히 번개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던 할아버지, 파란 번개에 휩쓸려간 아이들과 어둠의 세계

“번개가 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번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지만, 열두 살 조슈아 쿠퍼의 귀에는 그저 상상력과 걱정이 지나친 노인의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불던 8월의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 핀과 단 둘이 집에 남겨진 조슈아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 옳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빗 속에 밖에서 놀 수가 없어 집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두 사람은 방 창문에 파란 불빛 하나가 내리 쏘히고, 유리가 폭발하듯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을 목격한다. 순간 핀은 ‘아!’라고 외치는 입모양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고, 조슈아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손을 뻗는데 또 다시 파란 불빛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었고 핀의 고함 소리만 들렸다. 깨진 유리 사이로 빗줄기가 조슈아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뭔가 희끄무레한 존재가 나타났다. 우둘투둘한 손 하나가 조슈아의 손을 잡더니 방바닥으로 세게 밀쳐버렸다. 강렬한 불빛 때문에 여전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앞이 보이게 된 순간, 핀은 자신이 온통 빛에 둘러 싸여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디선가 천둥 소리 같은 웃음 소리가 나더니, 소름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엔 네 차례다!” 다시 세찬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고, 조슈아는 가까이 있는 의자 다리를 겨우 붙잡고 몸을 바닥에 납작하게 눕혀서 버티기 시작했다. 성난 바람은 잠시 후 잦아졌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핀은 온데간데 없었다. 깨진 창문만 보일 뿐, 세상은 고요했다.

친구를 찾기로 결심한 조슈아는 사라진 핀을 찾으려면, ‘번개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길 너머엔 인간의 아이들을 훔쳐다 노예로 부리고 에너지를 내는 재료로 사용하는 암흑의 세계가 존재했다. 그리스 올림포스의 신들의 후예들이 모든 힘을 잃고 암흑의 세계를 지배하던 중, 친구를 찾아 용감하게 찾아온 조슈아는 자신들의 힘을 되찾아 줄 존재로 이미 예언된 아이였다. 결국 핀을 찾아 무사히 집에 돌아가려고 시작된 조슈아의 모험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커지고 만다. 아이들을 훔치는 끔찍한 ‘어린이 수집가’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고, 시종일관 조슈아를 해치려고 덤비는 기이한 야수들도 처치해야 한다.

친구를 찾고 납치된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 위험한 모험, 마침내 발휘되기 시작한 숨겨진 능력

이 암흑의 세계에서 조슈아는 지금껏 있는 줄도 몰랐던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고, 핀과 납치된 아이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조슈아에게는 할아버지의 ‘크리스탈’이 있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크리스탈의 기능을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조슈아는 크리스탈을 꼭 쥐고 ‘번개 길’로 들어선다. 물론 이 엄청난 모험은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에 이어지는 후속 작품이 2015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돈나 갈란티(Donna Galanti)는 전 세계 스릴러 작가들과 그 작품을 소개하는 <빅 스릴러 매거진(Big Thrill magazine)>의 편집자로, 저서로는 ≪ Element Trilogy≫가 있다.